



# 북미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2014년 연례회의 참관기

글 | 조상훈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 한국학 사서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Korean Studies Librarian)  
sanghuncho@library.ucla.edu



2014년 북미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CEAL: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연례회의가 지난 3월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 열렸다. 북미아시아학회(AAS: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위원회 중 하나인 북미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연례회의는 북미 동아시아도서관의 소장자료와 서비스 등 동아시아도서관의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올해 연례회의는 '학술적 교류, 학제간연구, 그리고 e-Scholarship이 동아시아도서관에 미치는 영향(Scholarly Network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Scholarship: Implications for East Asian Libraries)'이라는 주제 하에 3월 24일과 25일에는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26일과 27일에는 협의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북미 전역과 아시아에서 동아시아도서관 관계자들과 사서들을 비롯하여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북미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는 이사회(Executive Board)를 비롯하여 한국자료위원회(CKM: 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중국자료위원회(CCM: Committee on Chinese Materials), 일본자료위원회(CJM: Committee on Japanese Materials) 등 3개의 국가별 자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서관서비스위원회(CPS: Committee on Public Service), 도서관기술위원회(Library Technology Committee), 목록화위원회(TPC: Technical Processing Committee), 회원위원회(Member Committee)등 4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 연례회의 첫째 날 - 차기 회장단 선거결과 발표 및 기조연설

피터 주(Peter Zhou,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도서관 부관장)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회의 첫째 날에는 협의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단의 선거결과 발표가 있었다. 2년을 임기(2014~2016)로 하는 새 회장에는 예일대학(Yale University)의 엘렌 하몬드(Ellen Hammond, 韓愛倫)가 선출되었다. 3년을 임기로 하는 각 위원회의 회장단은 한국자료위원회장에 듀크대학(Duke University)의 구미리 한국학사서, 중국자료위원회장에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홍칭(Hong Cheng) 중국학사서, 일본자료위원회장에는 캔사스대학(University of Kansas)의 미찌코이토(Michiko Ito) 일본학사서가 각각 선출되었다. 목록화위원회장에는 하와이대학(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의 에리카 장(Erica Chang)이 선출되었다. 각 위원회가 다른 임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서관서비스위원회, 도서관기술위원회, 그리고 회원위원회는 아직 회장단이 임기중에 있다.

###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 디지털시대와 동아시아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다

협회의 실무회의가 끝난 후 기조연설과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오전에 있었던 기조연설 중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피터 볼(Peter K. Bol)교수는 ‘컬렉션, 모듈, 그리고 온라인 공개수업에서의 동아시아도서관의 역할(Collections, Modules, and MOOCs: Roles for East Asian Libraries)’에 대해 논의하였다. 볼교수는 빠르게 변화해가는 교육환경, 특히 온라인을 통한 교육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동아시아도서관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인 앤드류멜론 재단(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의 도날드 워터스(Donald Waters)는 ‘디지털인문학과 이것이 학술커뮤니케이션의 환경변화에서 학술출판과 도서관에 미친 영향 (The Digital Humanities and their effects on Academic Publishing and Library Practices in the Changing Ecology of Scholarly Communications)’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마지막 기조연설자인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버지니아 스틸(Virginia Steel) 총도서관장은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세계화시대 연구도서관의 전략(Think Globally, Act Locally: Strategies for Research Librari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미국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은 국제교류를 통해 얻는 경험을 학업과 학교생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연구도서관도 이러한 도서관 이용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와 장서를 개발하고 도서관의 기능이 이용자에게 중점을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후 세션으로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하버드대학의 알렉산더 잘텐(Alexander Zahlten)교수가 ‘미디어 도구를 통한 온라인 학술행사 참석과 오프라인 학술행사 참석에서 참석이 내포하는 이슈들(The “Problem” of Presence: New Media Tools for Connectivity vs. Academic Event Culture)’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의 빅터 메이(Victor Mair)교수는 ‘중국학 연구에 있어서 블로그, 온라인 토론방, 온라인 포럼이 가지는 중요성(The Importance of Blogs, Discussion Lists, and Other Online Forums for Chinese Studies Today)’을 논하였으며 끝으로 싱가포르대학의 이성준(Seung Jun Lee)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기록물 연구(Archival Research in the Age of Digitization)’에 대하여 주제발표하였다.

## 연례회의 둘째 날 - 협의회(CEAL) 산하 7개 위원회의 개별 회의 개최

### 한국자료위원회(CKM) 회의

한국자료위원회(CKM)의 미팅으로 시작된 둘째 날은 7개의 위원회가 각각의 의제를 가지고 회의와 발제를 진행하였다. 한국자료위원회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올해 회장임기를 마치는 미시간대학(Michigan University)의 성윤아 한국학사서의 개회로 시작하여 8명의 위원회 구성원의 소개,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있을 제4회 규장각해외사서워크숍에 대한 안내, 그리고 2014년 출판예정인 『한국학사서를 위한 핸드북(Handboo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Outside Korea)』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어 ‘영문 한국학 학술자료(Korean Studies Scholarly Information in English)’를 주제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김점숙 편사연구사와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의 이형배 한국학사서가 각각 발제하였다. 김점숙 편사연구사는 1976년부터 시작된 국사편찬위원회의 미국내 한국관련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류 및 정리, 그리고 이 사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전자사료관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이형배 한국학사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구가치 있는 북미소재 한국관련 자료에 대해 발제하면서 러트거스대학(Rutgers University)의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컬렉션(William Elliot Griffis Collection)”, KWVDM 재단의 “한국전쟁참전용사 디지털기념관(Korean War Veterans Digital Memorial)” 자료, 그리고 프린스턴대학에 소장된 두 개의 이승만 대통령 관련 컬렉션을 소개하였다. 프린스턴대학의 이승만 대통령 관련 자료는 공문서 기록, 편지, 신문스크랩 등이 포함된 프린스턴 동문 문건(Graduate Alumni Files)들과 정부문서, 사진, 편지 등이 포함된 “존 포스터 델레스 컬렉션(John Foster Dulles Collections)”이다. 특히 존 포스터 델레스 컬렉션의 8박스 분량의 편지자료는 델레스가 미 국무장관이 되기 전인 1950년부터 시작되어 국무장관 재임시절(1953~1959) 동안 이승만 대통령과 교환한 것으로 당시 한반도의 상황 및 한미관계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제 후에는 지난 2013년 10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있었던 “제6회 해외한국학사서 워크숍”에 대한 참석자 보고가 있었다. 빙햄턴대학(Binghamton University)의 줄리 왕(Julie Wang) 아시아학 사서와 맥길대학(McGill University)의 메시 쟁(Macy Zheng) 동아시아학 사서는 6박 7일동안 있었던 워크숍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더 높였고, 한국학 관련 자료의 최신정보를 얻었으며,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하는 한국학사서들과 교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북미지역 한국학도서관 특화 컨소시엄(KCCNA: Korean Collection Consortium in North America)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대학은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각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한국관련 주제들에 대해 장서를 개발하고 있다.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컨소시엄 14개 회원대학은 총 만 천권이 넘는 규모의 장서를 수집하였고 컨소시엄은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함께 올 8월에 있을 제4회 규장각 해외사서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으며 “Ask a Korean Librarian”이라는 온라인 그룹을 통해 한국학사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북미소재의 학자, 학생 그리고 동료사서들에게 참고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각 위원회 개별회의

중국자료위원회(CCM)와 일본자료위원회(CJM)도 각각 회의를 진행하였다. ‘학문적 의사소통의 변화



와 도서관의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중국자료위원회 회의에서는 미국 내 중국 학자들과 미국학자들간의 학문적 의사소통 통로와 영향에 대한 연구, 학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의 문화적 차이, 중국 내 오픈엑세스(Open Access) 상황, 그리고 온라인상의 학술 블로그와 토론방 등의 기록보존에 대한 소주제 발표가 각각 있었다. 일본자료위원회는 북미일본연구자료조정협의회(NCC: North American Coordinating Council on Japanese Library Resources, 北米日本研究資料調整協議會)와 공동으로 '일본학을 위한 디지털자료 개발에 있어 도서관의 기회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디지털인문학의 기초가 될 일본자료 디지털화 작업' 그리고 미 의회도서관이 일본기관들과 추진중인 2개의 디지털프로젝트에 대한 2개의 소주제 발표가 있었다. 도서관서비스위원회(CPS), 도서관기술위원회, 목록화위원회(TPC), 회원위원회도 각각 회의를 진행하고 각 위원회의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록화위원회에서는 북미에서 기존 표준인 AACR2를 대체하고 2013년부터 사용하기로 결정한 새 목록화 표준인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의 시행상황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도서관서비스위원회에서는 피츠버그대학(Pittsburg University)의 도서관서비스 개편이 동아시아도서관에 가져온 영향을 주제로 사례발표가 있었다. 오후 5시 도서관서비스위원회의 회의를 끝으로 2014년 북미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회의의 모든 회의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2015년 연례회의는 3월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 북미아시아학회와 전시회

공식회의 일정을 끝낸 연례회의 참석자 중 다수는 회의일정 후에서도 계속 필라델피아에 머물며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북미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콘퍼런스에도 참석하였다.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CEAL)의 연례회의 이틀 째에 시작되는 북미아시아학회(AAS)의 콘퍼런스는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시아학 관련 학회로 올해는 360여 명의 발제자를 포함하여 총 3,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콘퍼런스 기간에 아시아학 학술관련 출판사들과 업체들의 전시회가 28일부터 있었다. 한국에서도 경인문화사,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문학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포함한 다수의 학술지 출판사와 관련기관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저서들과 자료집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시연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서 온 출판사들과 북미에서 학술저널을 발간하는 대학출판부 등 총 100여 개가 넘는 출판사들과 학술기관이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㉞